

〈자유연제 VI 14:30~15:10〉

## 견관절의 외상성 전방 불안정에서 관절낭 외측 절개를 통한 Bankart 복원술의 결과 - 중기 결과 -

태석기 · 정영복 · 박근형 · 한정남

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### 목적

Bankart 복원술은 견관절의 외상성 전방 불안정에서 표준적인 치료이다. 그러나 Bankart 복원술의 술기에는 관절낭 절개의 위치에 따라 몇가지의 변형이 있다.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성 전방 불안정 환자에서 관절낭의 외측 중절개를 통하여 시행한 Bankart 복원술의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는데 있다.

### 대상 및 방법

1997년 1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에서 외상성 전방 불안정에 대하여 관절낭 외측 절개를 통하여 Bankart복원술을 시행하고 평균 14개월(범위 6-27개월) 추시한 24례(남자 21례, 여자 3례; 평균연령 23.7세)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기록과 환자면담을 통하여 발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수술의 결과를 운동범위, Pennsylvania Shoulder Score중 기능점수, 통증 및 환자의 만족도, 합병증의 발생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.

### 결과

최초 탈구는 18례(76%)에서 스포츠 활동중 발생하였으며 최초 재발은 평균 5.7개월(범위 0.5-36개월)만에 발생하였고 수술은 최초 탈구 후 평균 28개월(범위 1개월-12년)에 시행하였다. 2례(8%)에서 Neer형의 T형 관절낭절개를 통한 이동술을, 9례(38%)에서는 관절낭의 횡절개 없이 관절낭 전체의 상방 이동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. 탈구의 재발은 없었으며 운동범위는 전방거상이 정상측의 평균 98%(범위 89-100%), 내전위에서의 외회전 92%(범위 71-100%), 외전위에서의 외회전 94%(범위 89-100%)이었다. 기능점수는 전례에서 향상되었다(술 전 평균 79, 술 후 평균 94)이었다. 20례(83%)에서는 overhead sports를 즐기고 있었다.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혈종(2례), 신경손상(3례), 금속성 anchor의 pull-out(2례) 등이 있었다.

### 결론

위의 결과는 관절낭 외측 절개를 통한 Bankart 복원술 후 양호한 운동범위 및 기능적 결과를 보여준다. 관절낭 외측 절개를 통한 Bankart 복원술은 외회전 제한을 최소화하며, 관절낭 이전술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에 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universal approach로 보인다. 그러나 수술 중 지혈 및 견인기구에 의한 신경손상에 주의하여야 하며 anchor pull-out의 가능성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.